

스크린 채운 1318 꿈·열정 ‘한국청소년영화제’

20~22일 유스퀘어·문화전당
본선 진출작 30편 상영
감독과의 대화·축하 공연도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꿈과 끼, 열정이 가득 담긴 작품이 스크린을 채운다.

미래 영상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청소년 문제의 대안을 영상미디어를 통해 제시하기 위한 ‘제19회 한국청소년영화제’(KYFF·Korea Youth Film Festival)가 20~22일 유스퀘어 야외무대(개막식)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지하 3층 극장3(작품 상영 및 폐막식)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사)백지청소년사회교육원(이사장 노성대·전 광주문화재단 대표)과 한국청소년영화제



지난해 청소년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그들이 사는 세상’.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오현·주식회사 BCM 대표)가 주관한다.

‘1318의 창, 너·나·보리’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다큐와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올해 한국청소년영화제 예

심을 거친 본선 진출작 30편이 상영된다.

20일 오후 7시 유스퀘어 야외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스티븐사잔전, 영화특수분장, 크로마키제현 등 부대행사와 함께 청소년 밴드, 무성영화 번사극 등 축하

공연을 선보인다.

이어 21~22일에는 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지하 3층 극장3에서 예심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작품 30편이 상영된다.

조직위는 전국 중·고등학생과 만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작품을 공모해 단편영화·다큐멘터리 등 총 134편을 접수하고 30편을 본선 진출작으로 최종 선정했다. 시상은 작품상(12명), 개인상(4명), 청소년 심사단상(1명) 등 3개 분야 최종 수상작을 결정할 예정이며, 4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심사단’의 심사점수도 20% 반영된다.

22일 폐막식에서는 청소년 심사단의 활동을 담은 메이킹 필름을 볼 수 있으며 시상식이 열린다. 홈페이지(<http://www.kyff.or.kr>)를 참고. 문의 062-368-8041.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레

지난달 초 동네서점을 취재하기 위해 경남 진주에 다녀왔다. 취재 약속 시간 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바람에 책방과 그리 멀지 않은 진주성을 찾았다. 진주성은 1592년 10월 진주 목사 김시민이 3800여 명으로 왜군 2만여 명과 맞서 싸워 승리한 유서깊은 곳이다. 평일 낮 시간인 데도 한가하게 성 안을 둘러보거나 사진촬영을 하는 관광객들로 북비 늘었다. 특히 중국이나 일본어로 대화를 나누는 외국인들이 많았다. 문득 지난해 미국 CNN 방송에서 한국 방문 때 꼭 가봐야 할 ‘아름다운 명소’로 소개됐다는

가 갈수록 관광객이 늘고 있는 것이다. 지역 유료축제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성과다. 16일 진주시는 올해 축제경비로 40억 원을 사용했지만 유료수입(입장료 수입 33억여 원, 입장료 외 수입 11억여 원) 44억원을 거둬 축제 재정자립도 11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진주시가 축제유료화를 추진한 이유는 정부의 축제일몰제(일정회수 이상의 축제에 정부지원을 줄이는 제도) 방침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3년 연속 문광부의 최우수 축제에 선정됐지만 정부의 국고

유등축제 vs 총장축제

사실이 떠올랐다.

성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유려한 동선이 인상적인 축석투가 눈에 들어왔다. 아름다운 누각에 앉아 남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만끽하는 관광객들의 표정에서 여유가 느껴졌다. 그 밑에 자리한 의암바위(논개가 몸을 던진 바위), 깔깔하게 단장된 잔디공원, 국립진주박물관까지 둘러보니 2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진주성이 글로벌 명소로 변신한 데에는 지난 2000년 창설된 남강유등축제(유등축제)의 공이 크다. 10월 초, 진주성과 남강 일대에서 열리는 유등축제는 진주성의 역사와 남강의 생명력을 엮은 콘텐츠, 전통풍습과 소망을 담은 7만 여개의 등(燈)을 선보여 매년 수십 여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 들인다.

특히 올해 유등축제(10월1일~15일)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 긴 추석 연휴와 겹치는 날씨에도 67만여 명(유료 입장객 41만여 명)이 다녀갔다. 유료축제(입장료 선인기준 1만 원)를 시행한 2015년 40만여명(유료 25만여 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55만여명(유료 30만여 명) 등 해

지원이 끊기지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는 차별화카드도 정면승부한 것이다.

유등축제의 성공이 부러운 건 18일 개막되는 광주 총장축제(18~22일) 때문이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총장축제는 ‘추억과 낭만’을 내걸고 지역민의 향수를 자극하는 콘텐츠 등으로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임진왜란 때 의병대장인 총장공 김덕령 장군의 호에서 따온 축제의 명칭이 무색할 만큼 정작 지역의 역사성을 스토리텔링화하는 데에는 소홀했다. 진주성을 세계적인 명소로 알린 유등축제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한 듯 총장축제가 대대적인 변신에 나섰다. ‘세대공감! 우리 모두의 추억’이라는 컨셉을 내걸고 70~90년까지 아우르는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통해 거리축제의 색깔을 보여준다는 각오다. 하지만, 지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없다면 공허할 터, 질이가는 가을,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추억 여행을 떠나자. 축제는 즐기는 자의 몫이니.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광주문화재단, 문화누리카드 무주여행 참가자 모집

광주시에 광주문화재단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2017 문화누리카드’ 가을 이벤트로 ‘문화누리카드로 찾아가자’를 마련하고 무주여행에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한다. ‘무주 하늘 여행’은 오는 21일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하며, 광주 농성역 6번출구에서 집결하고 광주문화예술회관 후문을 경유해 무주로 출발한다. 적상산 사고지와 전망대, 덕유산을 탐방하고 오후 6시 광주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구성돼 있다. 문의 062-670-7913, 7915. /박성천기자 skypark@

관객이 심사위원...숨막히는 ‘피아노 배틀’

안드레아스 킨·폴 시비스 대결

22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 내한공연에서 연이은 매진 행진을 기록한 ‘피아노 배틀’이 광주를 찾는다. 22일 오후 5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이번 공연은 아시아, 유럽 등 국제적인 무대에서 활약하는 독일 피아니스트 안드레아스 킨(Andreas Kern)과 폴 시비스(Paul Cibis)의 대결이 펼쳐진다.

폴 시비스는 현재 런던 트리니티 음악대학에 출강하고 있으며, 독일, 홍콩, 대만 한국 등에서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 중이다. 솔리스트와 실내악 연주자로 활동중인 안드레아스 킨은 연극, 무용 등의 분야에서도 클래식 음악을 선보이

며 예술가들과 협업하기도 했다.

지난 상반기 유럽공연, 2개월간의 북미투어, 4주간의 중국투어를 마치고 한국을 찾은 이들은 각각 다른 스타일의 연주와 쇼팽, 리스트와 드뷔시 등 당대의 뛰어난 작곡가들의 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장에 입장하면서 관객들은 흑과 백으로 표시된 투표 용지를 받게 된다. 관객이자 심사위원이 되는 청중들은 투표 용지를 손에 쥐고 매 라운드를 경험한 후 심사를 한다.

모든 라운드가 끝난 후, 무대를 향해 마음에 드는 연주자를 향해 투표 용지를 들어올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승자가 결정된다. 피날레 무대는 특별한 에피소드를 담은 우리나라의 곡을 선사한다. VIP석 9만9000원, R석 8만8000원, S석 6만6000원, 인터파크와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문의 1688-3820. /전은재기자 ej6621@



안드레아스 킨(왼쪽)과 폴 시비스

독일 오페라단 ‘마술피리’ 광주 공연 20~22일 문화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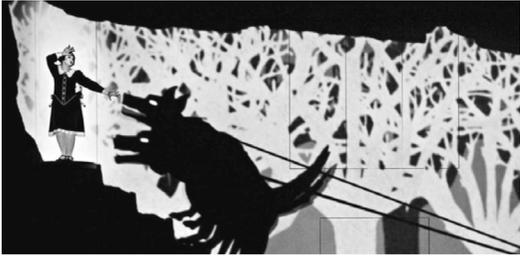
독일 코미세 오페라 베를린이 제작한 오페라 ‘마술피리’(사진)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1에서 열린다. 20일 오후 7시, 21일 오후 4시, 22일 오후 3시.

이 작품은 모차르트의 대표적 오페라 ‘마술피리’를 독일 ‘코미세 오페라 베를린’과 영국 ‘1927’ 그룹이 새로운 형식으로 공동 제작한 작품. 애니메이션 영상을 배경으로 성악가가 영상에 맞추어 연기하는 융복합 형태의 오페라다.

이 작품은 이색적으로 오페라에 애니메이션 영상을 접목했다. 무대 세트 없이 영상과 연기로 극이 진행된다. 1920년대 무성영화 캐릭터로 분장한 성악가들이 동화 같은 분위기의 애니메이션 영상에 맞춰 화려한 연기와 노래를 선보인다. 기존 오페라 공연과 달리 무대 세트 없이 오로지 영상과 연기만으로 관객을 압도하는 특별한 작품이다.

2012년 초연 후 미국, 중국, 스페인, 러시아 등의 무대에 올랐으며 한국 공연 후 일본, 호주 공연이 예정돼 있다. 코미세 오페라 베를린은 1892년 문 연 극장으로 쿠르트 마주어, 키릴 페트렌코 등이 음악감독을 역임했다.

R석 12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문의 1899-5566.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21일·28일 예향 광주 아트투어버스 운영

광주 문화 현장 곳곳을 둘러보는 ‘예향 광주 아트투어 버스’가 운영된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장주)가 가을 여행주간(10월21일~11월5일)에 맞춰 전국 4권역(광주, 경기, 충남, 제주)에서 진행하는 가을 아트투어 버스를.

21일과 28일 진행되는 광주 투어의 경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거점으로 대인 예술시장 등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 거점들과 양림동을 방문하는 코스다.

투어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양림동(월선 선교사 사택, 오원기념각, 윤희매 갤러리, 이장우 고택, 한희원 미술관)을 둘러본다. 또 김빛과, 주안미술관 등 대인동의 문화공간을 방문하고 대인예술시장 투어로 마무리한다. 21일에는 디자인비엔날레 관람 일정도 포함돼 있다. 또 미디어 아티스트 작가 아이비, 서양화가 한희원, 윤희매 작가와의 만남이 예정돼 있다.

오후 7시 서울역을 출발하는 상품으로 광주 참가자는 8시30분까지 송정역으로 가면 된다. 참가비용은 1만원이며 점심은 주최측에서 제공한다. 20일까지 선착순 접수. 문의 062-223-6050, 010-8618-7668. /김미은기자 mekim@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산구 월곡동 복합스포츠타운 수익률최상 대지 3,906㎡ 건물 2,689㎡ 매매 81억 투자자가능 (수영장, 키즈카페, 사우나)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사옥최적합 대로변, 병원가능)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십만)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사우나)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주상복합, 쇼핑타운적합부지)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병원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552㎡ 건물 995㎡ 최신시설 매매 30억 월수익1천6백5십만
- ★ [의료시설] 광산구 신가동 요양병원 지하층~지상4층 대지 3,000㎡ 건물 3,568㎡ 매매 56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지하층 지상7층 토지 1,490㎡ 건물 6,646㎡ 최신시설 매매 75억
- ★ [의료시설] 광주시 서구 농성동 지상5층 토지 2,319㎡ 건물 3,998㎡ 매매 73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330㎡ 건물 995㎡ 최신시설 매매 30억 월수익1천5백만
-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가 (상담요양)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제주도 강정마을 (펜션, 타운하우스부지) 바다 한라산 조망권최상 대지 15,716㎡ 매매가 평당220만원(교한, 조정가)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우수 인근 27홀 골프장 시설 부지 확정
- ★ [토지] 동구 지산유원지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카페거리상권
- ★ [토지]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대지 3,041㎡ 매매가 평당70만원(조정가)
- ★ [토지] 담양군 창평면 장화리 대지 7,226㎡ 매매가 평당50만원(조정가)
- ★ [토지] 전남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편백나무숲길 대지 2,720㎡ 매매7억 펜션부지, 전원주택 적합

광주,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